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연준 속보]
- 오늘 화요일 파월 의장 상원 은행 위원회 출석 발표 내용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주 정부와 시 정부 고용은 오히려 증가한다
- CNBC: 가격 둔화하지만 월마트, 치폴레 등은 소비 약세 느낀다
- WSJ: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부터 이틀간 의회 출두
- AP: 임대료 인플레가 스몰 비즈니스에 부담 준다

[오일]
- Bloomberg: 오일 약간 변동세…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낙관에

[물류]
- Bloomberg: 홍해 우회 화물선 폭풍과 파도로 인한 추가 지연 우려

[글로벌 경제]
- WSJ: OECD, '고용 시장 냉각 속에 실질 임금 회복된다'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Bloomberg: 미국 중소기업 낙관론,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올해 최고치 기록
- CNBC: 타겟, 7월 15일부터 개인 수표 결제 중단
- Bloomberg: Entek에 12억 달러 대출 지원…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망 확장
- WSJ: BP, 10억 달러 이상 손실 예상… 석유 거래 약세 탓

[보고서]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연준 속보]

파월 의장 상원 은행 위원회 출석 발표 내용

- 미 상업용 건물 리스크 수년 갈 수 있다.
- 좋은 인플레 둔화 지표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자신감 준다.
- 미 노동 시장은 완전히 균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.
- 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연준의 독립성은 중요하다.
- 연준은 은행들의 자본 요구안의 개선점을 모색한다.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States, Cities' Hiring Heats Up as Private-Sector Growth Cools
주 정부와 시 정부 고용은 오히려 증가한다

- 미국의 주 정부와 시 정부들이 지난달에 5만6천개의 일자리를 늘려 그들 공무원들의 총 급여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. 이는 민간 고용 증가가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. 시 또는 타운 정부의 고용은 지난 2022년 초 이래 거의 매달 증가세를 보였다.
-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현재 총 2천4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팬데믹 전보다 30만명이 늘어난 수준이다.
- 한마디로 민간 고용은 줄기 시작하는 반면에서 정부 고용은 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CNBC: Inflation outrage: Even as prices stabilize, Walmart, Chipotle and others feel the heat from skeptical customers
가격 둔화하지만 월마트, 치폴레 등은 소비 약세 느낀다

- 인플레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고물가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인플레가 주요 우려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.
- 예컨대 월마트, 웬디스, 치폴레 등은 고객들의 가격 압력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.
- 소매업체, 식당과 소비 관련 업체들은 물가 압력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.
- 이처럼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면서 타겟과 맥도널드, Aldi 등은 가격 인하를 시도하고 있으며 '좋은 가격 제품'이라고 선전하고 있다.
- 즉, 할인도 시도하고 프로모션도 시행하면서 자사 제품이 가격에 부담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.

CNBC 기사

WSJ: Fed Chair Jerome Powell to Address Congress: What to Expect
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부터 이틀간 의회 출석

- 파월 연준 의장은 매 6개월 마다 금융 정책을 의회에서 보고하는데, 오늘 화요일은 상원 은행 위원회, 내일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.

- 현재 파월의 입장은 금리 인하 전에 보다 충분한 물가 안정 지표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. 6월 연준 의원들은 회의에서 금년 말까지 한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.
-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의회에서 9월 금리 인하를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의 약세를 지적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. (오늘 오전 11시 20분 현재 그는 미 노동시장이 균형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).
- 한편 CME Group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9월에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하고 있다.

WSJ 기사

AP: Rent inflation remains a pressure point for small businesses
임대료 인플레가 스몰 비즈니스에 부담 준다

- 비용 부담이 스몰 비즈니스에 압력을 주고 있다.
- 특히 임대료 인플레이션이 그렇다고 Bank of America Institute가 발표했다.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까지 소기업들의 지출 가운데 임대료 매월 부담율이 9.1% 라는 것이다. 이는 지난 2019년 5.9%에서 크게 상승했다.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2% 상승한 것이다.
- 특히, 라스베이거스 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전국 평균의 두배이다.

AP 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il Swings as Powell's Labor Comments Boost Rate Cut Optimism
오일 약간 변동세…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낙관에

- 파월 의장이 오늘 화요일 의회에서 노동 시장이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발언함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낙관론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가는 약간의 변동폭을 보였다.
-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82달러에 근접한 상태로 별 변동이 없었다. 오일 가격이 초반에 0.8%까지 하락한 이유는 휴스턴 오일 허브가 폭풍 Beryl을 극복하고 복구 작업에 진전을 보였기 때문이다.
- 원유 가격은 올해 현재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연준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OPED+가 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.

Bloomberg 기사

[물류]

Bloomberg: Global Shipping Hammered by 30-Foot Waves and a US Hurricane
홍해 우회 화물선 폭풍과 파도로 인한 추가 지연 우려

-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하고자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화물선들이 폭풍으로 인한 30피트 높이의 파도에 직면해, 추가 지연이 예상된다.
- 남아프리카 기상청은 화요일에 두 번째 한랭전선이 웨스트 케이프 주에 상륙하여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. 이전 한랭전선에서는 남서쪽에서 최고 10미터 높이의 파도와 함께 북서풍에서 서풍으로 바뀌는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했다.
-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(Maersk)는 선박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을 피하기 위해 피난처를 찾거나 항로를 변경해야 하며, 앞으로 며칠 동안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.
- 한편 이번 주 허리케인 베릴(Beryl)의 영향으로 에너지 원자재와 부산물의 주요 관문인 휴스턴 항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폐쇄되었다. 이에 따라 250만 개 이상의 가정과 기업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, 머스크는 휴스턴 터미널 게이트가 재가동되면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.

Bloomberg 기사

[글로벌 경제]

WSJ: OECD Expects Cooling Jobs Markets, But Continued Recovery In Real Wages
OECD, '고용 시장 냉각 속에 실질 임금 회복된다'
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는 화요일 발표한 연례 고용 시장 보고서에서 세계 부유한 국가들의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, 실질 임금은 이익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.
- OECD는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이 물가보다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,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실질 임금이 2019년 후반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.
- 고용 시장 냉각 징후로는 구직자 수 대비 빈자리 감소를 언급했으나,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때와 같은 급격한 실업률 상승은 예상하지 않았다.

- 미국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모두 고용이 1% 미만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약 4%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으며, 이는 OECD 38개 회원국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한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US Small-Business Optimism Rises for Third Month to 2024 High
미국 중소기업 낙관론,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올해 최고치 기록

- 미국 중소기업의 낙관론이 6월에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. 전미 독립 비즈니스 연맹(NFIB)의 심리지수는 91.5로, 경기 전망에 비관적인 기업의 비율이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.
- 여전히 높은 물가, 금리, 인건비, 지속적인 고용난으로 체감 경기 지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, 6월에는 재고 관리 개선에 힘입어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10개 요소 중 4개가 상승했다.
- 가격 인상 기업의 비율은 27%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, 2022년 정점에는 미치지 못했다. 건설과 소매업에서 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으며,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큰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청구할 계획이라고 답한 비즈니스 소유자의 비율은 감소했다.

Bloomberg 기사

CNBC: Target will stop accepting personal checks
타겟, 7월 15일부터 개인 수표 결제 중단

-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 타겟(Target)은 7월 15일부터 개인 수표를 결제 수단으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.
- 타겟은 성명을 통해 개인 수표 사용량이 매우 적어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, 쉽고 편리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다.
- 또한 현금, 애플 페이, SNAP/EBT, 신용 카드와 같은 디지털 결제는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EV Battery Component Maker Entek Poised to Get $1.2 Billion US Loan

Entek에 12억 달러 대출 지원…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망 확장

-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미국 내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 엔텍 리튬 세퍼레이터(Entek Lithium Separators LLC)에 12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.
- 미국 에너지부의 발표에 따르면, 엔텍은 인디애나폴리스 서쪽에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제조 시설을 신설할 예정이다. 이는 국내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확장하려는 백악관의 목표와 일치한다.
- 엔텍은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, 즉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한 멤브레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. 인디애나주 테러 호트에 위치한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17억 2천만 제곱미터의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며, 이는 중형 전기차 약 190만 대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.

Bloomberg 기사

WSJ: BP to Book Up to $2 Billion Impairment, Warns of Lower Refining Margins
BP, 10억 달러 이상 손실 예상… 석유 거래 약세 탓

- 영국 에너지 기업 BP가 2분기에 석유 거래 약세와 정제 마진 하락으로 10억에서 2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BP는 세후 자산 손실과 독일 겔젠키르헨 정유소 검토 관련 비용을 포함한 일회성 계약 충당금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. 3월에는 수요 전망 약화로 하루 26만5천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정유 시설 중 3분의 1을 폐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.
- XTB 리서치 디렉터 Kathleen Brooks는 시장 논평에서 재생 에너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연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, 석유 회사와 정유 업체들이 앞으로 더 자주 변동성이 큰 정제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.

WSJ 기사

S&P500 올해 35번째 신고점…'추가 상승 vs 10% 하락' 전망 갈려

오펜하이머, S&P500목표가 5,900으로 ↑…모건스탠리·베르덴스, 조정 경고

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 500이 연일 고점을 높여가는 가운데, 월가 내에서는 향후 미 증시 진행 방향에 대해 견해가 갈리고 있다.

8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S&P 500지수는 전장보다 5.66 포인트(0.10%) 오른 5,572.85에 거래를 마감,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올해 들어 35번째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.

이번 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의장의 의회 출석, 6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 및 생산자물가지수(PPI) 발표, 실적 시즌 돌입 등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